

베르사유 감동시킨 거장 이우환의 아치



베르사유궁 정원에 설치된 이우환 작품 앞에서 이 전시를 기획한 파크망 전 풍피두센터 관장, 이우환, 카트린 페가르 베르사유 관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3km 떨어진 베르사유 궁전. 절대왕정의 상징이자 프랑스 대표 문화유산인 이곳에 한국 작가 최초로 역대 7번째로 대규모 전시를 여는 이우환(78)을 지난 12일 만났다. 천재 정원사 르 노르트가 직접 설계한 17세기 바로크 정원이 시작되는 큰 길 앞에서였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완벽하게 꾸며진 인공적인 공간에 무슨 일이 가능한가 고민했어요. 결국 그 완벽을 넘어서는 게 내 작업이었죠.”

침바지를 입은 그가 선 자리 뒤에는 무지개 모양의 신작 ‘관계항-베르사유의 아치’가 서 있다. 높이 12m, 길이 30m의 둥근 스테인리스 철판이 아치 모양으로 서 있고 양쪽 끝에는 돌이 놓여 있다. 이우환의 작품 중 최대 크기. 정원에 들어서려면 이 3m 폭의 무지개 길을 걸어가야 한다.

“10여 년 전 길을 걷다가 무지개를 보았지요. 이 느낌을 잊어버렸다가 이곳에 와서 무지개 아치를 만들어 사람들이 지나가는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로 인해 하늘과 주변이 새롭게, 완전히 다르게 열리는 것이지요.”

베르사유궁은 2008년부터 제프 쿤스를 시작으로 무라카미 다카시 등 매년 거장을 한 명씩 선정해 현대미술전을 열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역사적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차원에

베르사유궁에 대형 설치작품 10점 선보여 “관람객들 작품 앞에 서있게 하고 싶어”

서다. 생존 작가에겐 베르사유궁 전시가 최고의 영예다. 이우환은 궁전 내부에 1969년 구작을 연상케 하는 작품 한 점을 설치하고 나머지 9점은 정원 곳곳에 ‘관계항’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이고 있다. 작품 10점이 모두 신작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돌은 수만년 전부터 있었던 자연을, 철판은 문명화된 산업사회를 상징한다.



‘관계항-거인의 지팡이’

“사람들은 오늘날 빠른 속도와 대량소비에 지쳐 있죠. 현대미술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전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 멈춰 서서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내 이름이나 작품 제목을 몰라도 지나치면서 신기하다는 느낌만 받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는 전시를 위해 베르사유궁을 50번 가까이 다녀왔다. “궁전을 산책할 때마다 르 노르트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이 완전무결한 정원을 다른 공간으로 열어보라고 하고.”

운하로 이어지는 긴 잔디밭에 카펫처럼 철판을 깔아 날개 달린 바람을 형상화한 작업이나 오솔길에 놓인 철판과 돌의 만남, 복두철성을 형상화한 작품 등은 관람객을 사색과 침묵의 세계로 이끈다.

“백남준 선생이 말했어요. 전시가 작든 크든 작가는 그 다음에 없다는 식으로 모든 열의와 성의, 돈이나 생각을 몽땅 그 전시에 다 털어넣는다고요. 지금 내가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 건강이 엉망진창이지요.”

해외 전문가들은 호평을 내놓았다. 리처드 바인 ‘아트인아메리카’ 편집인은 “재료에 대한 순수성과 물질성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리/이향휘 기자